

한국 선수단, 아시안게임 금빛 다짐

“일본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 꽂겠다”

아이치·나고야 개최

AG D-30 미디어데이

48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태극마크를 달고 대회에 나설 선수들은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9월 19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로마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4일까지 16일간 열전을 펼친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인 45개국이 모두 참가할 예정이며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 걸쳐있는 468개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한국은 전체 43개 종목 중 크리켓과 배틀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총 792명을 파견한다.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40~45개와 종합 3위 수성이다.

이날 미디어데이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상현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등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1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했다.

한국 남자 수영 애이스 김우민(강원도청)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이번에도 다관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민과 함께 ‘쌍두마차’로 활약 중인 황선우(강원도청)는 “항저우 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에도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대한체육장이 20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 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 남자 유도 최종람급 간판 김민종(안양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서 아쉬운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유도 허미미(경북체육회)는 “일본에서 하나가 이루어져 조금 더 긴장되고 부담이 된다.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힘이 난다.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제2의 장미란 역도 박혜정(고양시청)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오겠다”고 전했다.

여흥철의 딸 체조 여서정(제천시청)은 “항저우 대회에 아쉽게 나가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이번 대회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겠다”

고 다짐했다.

남자 근대5종 애이스 전용태(강원도체육회)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근대 5종 선수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전했다.

2022 항저우 대회와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여자 근대 5종 성승민(한국체대)은 “항저우 대회에서 팀원들과 함께 단체전 메달만 목에 걸었는데 이번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복싱 임예지(화순군청)는 “이번이 세 번째 아시안게임 출전이다. 이번에는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여자 펜싱 국가대표 송세라(부산광역시청)는 “항저우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이라는 좋은 결

과를 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국 육상 단거리 기대주 나미다 조엘진(예천군청)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육상 이재성(광주광역시청)은 “항저우 대회에서 깜짝 동메달을 딴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는 깜짝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말했다.

남자 농구 대표팀 주장 이승현(현대모비스)은 “이번이 세 번째 아시안게임인데 아직 메달을 딴 경험이 없다. 선수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번엔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남자 배구 대표팀 캡틴 차영석(KB손해보험)은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좋은 성적 거두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스포츠로 하나 되는 청춘

29일 제2회 전주시장배 전주e스포츠마스터즈

국제드론스포츠센터서… 전국 400여명 참가

전주시가 올해도 청소년과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전한 스포츠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한 e스포츠 대회를 열기로 했다. 시와 전주청소년센터(센터장 김성철)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전주 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제2회 전주시장배 전주e스포츠마스터즈’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소통하며 스포츠 정신과 팀워크를 기를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산과 차세대 e스포츠 인재 발굴·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는 △브롤스타즈(브롤볼) △철권8 △브롤스타즈(트리오소다운) 등 총 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브롤스타즈(브롤볼) 13~24세, 철권8 15~24세이며, 브롤스타즈(트리오소다운)는 9세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선수 400여명과 댄스 공연 참가자 200여명, 가족과 관람객 등을 포함해 총 8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선수들은 예선과 4강전 결승전을 거쳐 종목별 우승자를 가리며, 각 종목 우승·준우승 선수 및 팀에게 총 26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대회장에서는 △청소년 댄스공연 △포토존 △미니게임 △굿즈 판매존 △전주시 및 청소



년 유관기관 홍보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시는 이번 대회를 e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영숙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 “e스포츠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포스터 내 QR코드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청소년센터(063-273-5501)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뜨거운 승부, 시원한 홈런… 익산서 전국여자야구대회

시원한 홈런포가 펼쳐질 ‘익산시 전국여자야구대회’가 오는 22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15회 익산시 전국여자야구대회’가 오는 22~23일과 29~30일 주말 4일간 익산야구장과 보조구장, 원광대학교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야구연맹과 익

22~23일, 29~30일 주말 4일간 익산야구장 등에서 열린

산시아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전국 34개 팀 선수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챔피언십(상위리그) 17개 팀, 퓨처리그(하위리그) 17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산은 대표팀은 여자야구단 ‘익산 에메이징’

도 퓨처리그에 참가해 전국의 선수들과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익산시 전국 여자야구대회는 여자야구 선수들에게 꾸준한 경기 기회를 제공하고 선수 간 교류를 넓히는 전국 규모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기장 관리와 폭염 대응에 힘쓴다. 익산야구장과 보조구장, 원광대학교 야구장으로 경기를 분산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두 주말에 걸쳐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 등 1,000여명이 익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숙박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석대 박지원 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선임

우석대학교 박지원 태권도학과 교수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지난 19일부터 2028년 8월 18일까지 2년이다.

박지원 교수는 상명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한 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체육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3월 우석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태권도와 체육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번 선임으로 박 교수는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스포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박지원 교수는 “체육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스포츠 현장과 학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체육 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서울시체육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여가문화학회·여성체육학회·스포츠마케팅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

전주매일 캠페인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진안 웅치전투

완주·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